

제 목	국 문	병원표준화심사의 질 향상 관련 항목에 대한 의견 조사		
	영 문	Opinions of Hospital Staffs on the Korean Hospital Standardization Program and It's Criteria and Standards for Quality Activities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이상일 <sup>1)</sup> , 김창엽 <sup>2)</sup> , 신영수 <sup>2)</sup> 1)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2)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영 문	Sang-Il Lee <sup>1)</sup> , Chang-Yup Kim <sup>2)</sup> , Youngsoo Shin <sup>2)</sup> 1) Dept. of Health Policy & Management., College of Med., Seoul Nat'l Univ. 2) Dept. of Prev. Med., College of Med., Univ. of Ulsan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이 상 일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 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V ), 연구중 ( ) → 완료 예정 시기 : 96년 5월			

### 1. 연구 목적

병원표준화사업은 대한병원협회에 의하여 1963년부터 시행되고 있던 수련병원 지정을 위한 심사를 확대하여 발전시킨 것으로서, 전국의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병원신임제도(hospital accreditation program)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1981년에 시작된 우리나라 병원표준화심사는 종전의 수련병원심사에 비하여 병원의 구조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인정받았으며,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 책정과 연결되어 수련병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국의 거의 모든 종합 병원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병원표준화사업이 정착되어감에 따라 여러 병원이 나름대로 이 제도를 병원 진료의 질 개선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고 있으나, 심사 항목의 적절성, 심사의 타당성 및 신뢰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최근 각급 병원의 질 향상 노력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병원표준화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자료의 제시는 미약한 실정이다. 이 조사는 현행 병원표준화심사 전반 및 질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항목에 대한 일선 실무자의 의견을 수집하여 병원표준화심사의 실제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 2. 연구 방법

일선 실무자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진이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조사대상자 및 병원의 일반적 특성, 병원표준화심사에 대한 평가, 병원표준화심사와 병원 내의 질 향상 활동과의 관련성, QA 활동 및 이에 대한 의견, 병원표준화심사 및 QA 관련 항목의 개선 요망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상자는 병원 내에서 QA 관련 업무를 맡고 있거나 병원표준화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설정하였다. 1994년 병원표준화심사의 '조사평가부서' 서류 심사에 기재된 담당자의 명단을 파악하고, 이용도조사부문과 적정진료보장부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각각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조사 대상이 된 병원의 수는 모두 200개였으며, 470명의 조사대상자가 선정되었다.

### 3. 연구결과

#### 1) 응답율

병원수를 기준으로 할 때 37.5%(75/200), 인원수를 기준으로 할 때 24.7% (116/470)이었다.

#### 2) QA 담당 부서의 특성

부서의 명칭은 매우 다양하였으며, 적정진료보장위원회 또는 적정진료평가위원회가 가장 많았다. 책임자의 지위는 진료부장, 원장, 교수의 순으로 나타났다.

#### 3) 병원표준화심사 전반의 현황 및 개선 의견

응답자의 34.5%가 현행 병원표준화심사가 진료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61.2%가 '그저 그렇다' 또는 '전혀 무관하다'고 응답하였다. 병원표준화심사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응답자의 절반이 '평상시 심사요강에 맞추어 병원 업무가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편'이라고 하였고, 나머지는 심사에 대비하여 단기간의 준비만 하거나 서류를 갖추는 정도라고 하였다. 현행 병원표준화심사 중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심사요강을 보다 실체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과 '심사대비용 지침을 배부하고 병원이 이에 맞추어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주로 지적하였다.

#### 4) 병원표준화심사의 조사평가부서의 현황 및 개선 의견

병원표준화심사 중 QA관련 부문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노력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3.1%이었다. 병원표준화심사 요강 중 QA관련 요강에 대한 의견으로는 형식은 유지하되 대폭 고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44.8%를 차지하였고, 그냥 두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24.1%이었으며, 모두 없애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11.2%이었다. 한편, QA관련 요강을 바꿀 경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79.3%에서 제기되어 다른 응답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았다.

### 4. 고찰

현행 병원표준화심사가 진료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분의 응답자를 빼고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절반을 넘는 응답자가 심사의 의의에 대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병원표준화심사가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병원표준화심사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심사요강이 보다 실체적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과 심사에 대비한 지침서가 배부되어 실체적인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은 응답에 속했다. 이는 심사를 받는 기관들이 현재의 심사가 가지고 있는 평가적인 성격보다는 교육 혹은 계도적인 기능을 더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QA관련 요강에 대해서는 대폭 고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현행 요강에 대한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QA와 관련된 요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은 '현실성'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현재의 요강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요구는 꼭 병원표준화심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QA 전반의 발전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QA 활동이 단시일 내에 정착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 동안 현실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QA 활동의 내용과 방법의 개발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병원표준화심사, 특히 QA 관련 부문은 현실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각 병원의 질 향상은 물론 우리 나라 전체의 전반적인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